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 여부 놓고

# 도의회 ‘찬 vs 반’ 깊어지는 고민

### 제2공항 찬반 갈등 프레임 간헐 눈치보기 장기화 김태석 의장 “정례회 후 토론회” 처리 연기 가능성

제주도의회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주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2공항 찬·반 갈등 프레임에 갇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번 정례회 이후로 결정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원안 가결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상임위에서 위원장까지 참여한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상임위가 원안 가결한 안건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 보류한 것 역시 드문 일여서 당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이 이처럼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는 제주특별법 제2공항 예정지 등 관리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행 조례안은 제주특별법과 상이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는 항만·공항의 설치 불가능하지만 현행 조례안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는 항만·공항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이 때문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되, 등급의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특별법과 조례를 동일하게 하려는 것인데, 자주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와전되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

는 것”이라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실제 홍 의원이 지난 3월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거센 찬반 논란이 제기되자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철퇴해 5월 재발의 때는 홍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만 발의자로 남았다. 공동 발의자인 한 의원은 “제2공항 찬·반 논란도 있지만 의원들은 지난 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 부결 사태 때와 같은 후폭풍이 우려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상임위에서 ‘4:3’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안 받을 순 없지만 다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6월 정례회가 끝나고 7월 초에 다시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기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어떤 형식으로든 토론회를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이번 정례회에는 상정하지 않을 생각임을 내비쳤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문 대통령, WTO 분쟁 승소 이끈 공무원들 격려

### 제주출신 고성민 전 사무관 공무원 20여명 청와대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이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임장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한 고성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WTO 분쟁을 승소로 이끈 제주출신 고성민 산업통상부 전 사무관 등 주요 국정현안과 관련해 성과를 낸 공무원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일본산 수산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승소,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 등재, 강원도 산불피해 신속 대응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로 성과를 낸 16개 부처 23명의 실무 공무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제주출신 고성민 전 사무관은 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하는 데 기여해 담당과장과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분도 공직에 있

는 동료에게 그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길 바란다”며 “오늘 자리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에게 초심을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협기자 bu8385@ihalla.com

### 장마철 대비 모기 방역 강화 방역소독기 주민렌탈사업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지난 8일 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철 모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6개 보건소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마을 단위로 구성된 122개 자율방역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방역단은 그동안 공동주택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 취약시설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유충구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하절기에는 주거지 인근·공원·하천·습지에서 모기성충 방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거 밀집지역은 주민자율방역단과 합동으로 주 1~2회 야간 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특히 모기 활동이 왕성해지는 장마철에 대비해 ‘민원 다발 지역 방역소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방역소독기 지역주민 렌탈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집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야외활동 및 가정에서의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성준기자

## “장애 아젠다 설정해 정책으로 실현”

###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발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재훈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는 지난 8일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영훈 도당 위원장과 위성근 국회의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김현덕 위원장, 대통령장애인공약추진위원

회 고관철 위원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회 박영재 위원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들을 비롯해 당원들이 참석해 장애인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김재훈 위원장은 “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며 “장애 아젠다를 설정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상시 배치

### 1년 이내 퇴소자 이용 간소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가 상시 배치되고, 1년 이내 퇴소자의 서비스 이용이 간소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한

부모시설(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와 1년 이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된다.

제주도는 특히 이달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 요청 시 실제 연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파견 돌보미가 자주 바뀌어 돌보

미와 아동 간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를 상시 배치하게 되면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지 않아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1년 이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한 한부모가족은 기존에는 소득상정 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별도의 소득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액 시설에서 부담한다.

표성준기자

### JDC-LX 감사품질 향상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부패·청렴·사회적 가치 실현과 감사 업무관련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감사관련 기법과 정보의 상호 공유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인력 풀 공동 구성 등 감사 인프라를 공유하게 된다.

이소진기자

### 장애인권리 UN당사국 회의

### 김경미 의원 정부대표단 참석

김경미(사진) 의원이 UN당사국 회의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11~13일 열리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차 UN당사국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UN인권 협약으로서 2006년 12월 13일에 채택된 이 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77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1일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2009년 1월 10일 발효시켰다.

김 의원은 이번 UN당사국 회의에서 원탁회의 논의 주제인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레저 및 스포츠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표성준기자

## 서귀포시 힐링명상지도사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공고

2019년 서귀포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민들을 힐링함으로써 서귀포시를 세계 최고의 힐링도시로 만들어 제주를 진정한 힐링의 섬으로 만들어나갈 서귀포시 힐링명상지도사(1기) 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9일

- 선발 인원** 총 30명
- 자격 기준**
  - 기본 요건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귀포시에 두고 있는 자
  - 우대 조건
    -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NGO 활동, 가이드 등 관련 경력 보유자
    - 힐링·명상 분야 지도 및 자연·문화관광 분야 해설 경력자
- 교육 기간** 2019. 7. 6 ~ 8. 24 (매주 토요일 오후2시~6시, 총8차 과정)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분야** 힐링·명상의 원리와 방법 및 실습, 소문 및 전달력 실기
- 교육비** 없음 (서귀포시 지원사업비에서 전액 지원)
- 수료조건** 출석률 80%이상 / 실습 70점 이상
-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19. 5. 30(목) ~ 6. 13(목)
  - 접수 방법 :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를 이메일, 등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 신청서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교육->교육정보 No 3501에서 다운로드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jhmediation@hanmail.net
    - 등기우편/방문접수 : (6360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58(3층) 제주힐링명상협회 (앞)
  - 선발 방법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전화 또는 직접면접) 실시
  - 선발 확정 발표 : 2019. 6. 17(월) 개별 통지
- 교육 장소**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3층(서귀포혁신도시 해양경찰청 맞은편)
- 문의 사항** ☎064-762-2096 (제주힐링명상협회 사무국)

## 제주 힐링명상협회

## (사)제주식품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4차산업과 지속 가능한 제주형 식품산업』 심포지엄

신록이 물들어가는 제주의 유월은 비자뻘을 흘리며서 보리밭을 끝내고 순다리를 만드신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봄의 끝자락을 부여받고 우리 (사)제주식품산업학회에서는 제주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식품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4차산업과 지속가능한 제주형 식품산업』이라는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합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하여 4차산업혁명이라는 총론에 제주식품산업은 어떻게 융·복합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실태를 풀어 가는 데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도 내·외 식품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9년 6월 12일(수) 14:00~18:10  
**장소** 제주 베스트웨스턴 호텔 2층 Lily Hall

주최: (사)제주식품산업학회 · 후원: (사) 제주특별자치도

Program	등 록
14:00~14:30	개회식
14:30~15:00	오명철 (사)제주식품산업학회 회장
〈심포지엄 : 4차산업과 지속가능한 제주형 식품산업〉	
1부	좌장: 김현성(제주대학교)
15:00~16:00	최성욱 (한국식품연구원)
16:00~17:00	이대희 (전주대학교)
17:00~17:10	휴 식
17:10~18:10	김윤성 (제주국제대학교)
2부	간담회
18:30~20:00	간담회

(사)제주식품산업학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Tel. (064)754-3610 FAX : (064)755-3601 총무이사 (010-3595-3671)

##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6월 16일(일) 08:00  
**장소**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서귀포점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 인 원: 선착순 40명
- 비 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 농협 351-1060-7931-53
  -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비물: 도식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산행코스: 무오법사-강정천-연물-하원수로길-무오법사

###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사관후보생  
1992년 8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시방매(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할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반경 44일간 세계최단기복 성공  
2006년 5월 11일 9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르 1봉(8,083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르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마나슬루(8,166m)등정  
2007년 배낭해킹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관광 행회장수출(체육진흥법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전무이사(010-3691-7771)